

GIST, 세계적 기업 ‘가탄’과 손잡고 기술센터 구축

〈전자현미경〉

가탄·로티스코리아와 업무협약…최신 첨단분석기술 지원
GIST 인프라 활용…국내 연구자 대상 개방형 플랫폼 운영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세계적인 전자현미경 분석 솔루션 기업 가탄(Gatan)과 손잡고 국내 연구자들을 위한 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 거점 구축에 나선다.

GIST는 지난 19일 중앙기기연구소에서 가탄 및 국내 공식 총판인 ㈜로티스코리아와 첨단분석 기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기철 GIST 총장을 비롯해 정성호 교학부총장, 김용철 연구부총장, 이은지 대외협력처장, 임현섭 중앙기기연구소장과 가탄 스티븐 맥 대표, 로이스턴 테오 아시아 총괄책임자, 서흥제로티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가탄은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물질의 구조와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와 직접전자검출기, 에너지 여과기,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GIST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의 기존 전자현미경실은 ‘가탄 기술센터(Gatan Technical Center·GTC)’로 운영된다.

가탄 기술센터는 GIST가 보유한 첨단 전자현미경과 가탄의 최신 분석기술을 결합해 국내 연구자들이 첨단 분석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술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GIST- Gatan - (주)로티스코리아 업무협약

일시 | 2026.08.19.(수) 11:00

GIST GATAN LOTIS



GIST는 지난 19일 중앙기기연구소에서 가탄 및 국내 공식 총판인 ㈜로티스코리아와 첨단분석 기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과학기술원

세 기관은 △가탄 장비를 활용한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세미나·워크숍 △최신 장비·소프트웨어 시연 및 체험 △전자현

미경 분석용 시료 제작과 관련 시설 지원 △연구자 대상 분석기술 자문 및 장비 활용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GIST는 전자현미경과 관련 연구시설을 교육과 장비 시연, 연구 지원 등에 제공하고, 로티스코리아는 교육·세미나·

워크숍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가탄은 최신 분석장비와 응용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자료,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임현섭 GIST 중앙기기연구소장은 “가탄 기술센터는 GIST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세계적인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거점”이라며 “국내 연구자들이 최신 분석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가 첨단 분석 역량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맥 대표도 “GIS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연구자들에게 세계 수준의 분석기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가탄 기술센터가 연구 현장과 첨단 분석기술을 연결하고 새로운 연구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20일 쿨킷 제작에 참여한 선운술유치원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폭염 대응 ‘시원한 연대’

어린이부터 KOICA 연수단까지 10개 기관·단체 100여명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정배)는 20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너른마루에서 ‘기후재난(폭염) 대응 쿨킷 제작·전달’ 활동을 열고, 폭염 취약아이를 위한 쿨킷 200세트와 냉감이불 10채를 제작,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장기화된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가운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지원사업으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자가 취약아이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지역 밀착형 재난대응 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3년차 진행되고 있는 KOICA 글로벌연수사업 필리핀 연수단을 비롯해 G-ESG기업봉사단, 빛고을청년봉사단,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 재난대응봉사회, 광산구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캠프, 어룡동행정복지센터,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운술유치원 등 10개 기관·단체 100여명이 참여했다. 민·관·학·기업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담아 쿨킷을 공동 제작하고 폭염 취약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쿨킷에는 방수 파우치, 쿨스프레이, 쿨 멀티스카프, 국산 미숫가루, 생수, 쿨습식타올 등 폭염 대응물품과 함께 KT사랑의봉사단이 후원한 손선통기·쿨토시, 상무유디치과가 후원한 컷솔·치약세트,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안부염서 등이 담겼다.

완성된 쿨킷 200세트는 어룡동 폭염 취약아이를 100세트, 광산구 관내 경로당 60세트,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40세트로 나눠 전달됐으며, 냉감이불 10채도 함께 지원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

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4급 승진 △행정운영공무원 운영지원과 김옥란 ◇4급 전보 △전남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이계영 ◇5급 전보 △미래성장국 노사안전과 류제윤

광양농협, 구례·포항·남해 지역 농협과 상호 ‘고향사랑기부’

지역과 농협 간 교류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시청 청의실에서 광양농협과 구례군, 포항시, 남해군 지역농협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광양농협 임직원들은 이번 전달식에서 구례군, 포항시, 남해군에 1500만원, 구례군, 포항시, 남해군 지역농협 임직원들은 광양시에 18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광양농협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된 2023년부터 4년 연속 참여하는 등 지역과 농협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허순구 광양농협조합장은 “농협 간 협력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시청 청의실에서 광양농협과 구례군, 포항시, 남해군 지역농협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아 지역 농업에도 힘을 보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는 농협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4년째 이어진 광양농협의 상호기부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농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양=김진기 기자 kjjin@

“우리 쌀로 피자 굽고 양들과 교감해요”

농협광주본부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단’ 4회차 진행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19일 광산구 숭산목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50여명과 함께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단’ 4회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을 비롯해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임문채 삼도농협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농업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수입 밀가루 대신 100% 우리 쌀가루로 직접 도우를 만들고 피자를 완성하는 ‘우리 쌀 피자 쿠킹클래스’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리 쌀의 가치와 쌀 소비 촉진의 의미를 배우고, 건강한 식재료와 바른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푸른 초원에서 양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양떼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하며 동물과 교감하고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의 의미도 체험했다.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은 “아이들이



농협광주본부는 19일 광산구 숭산목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50여 명과 함께 ‘농심천심 미래농부 체험단’ 4회차 행사를 진행했다.

직접 만든 쌀 피자를 맛보고 동물과 교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농업이 지닌 치유와 생명의 힘을 다시 느꼈다”며 “미래 세대가 농촌을 친근하고 따뜻한 공

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농심천심’의 가치를 담은 현장 중심의 상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7월 9일)

쥐

토끼

말

닭

돼지

48년생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60년생 손실 따르다 해도 이것을 투지라 생각
72년생 자동차나 길거리를 조심하라
84년생 재물 있고 땅 있으니 얼마다 좋다
96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길할 것

51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3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순조롭기 그지없다
75년생 공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87년생 깊어지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99년생 자격시험에 서광이 비친다

54년생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마라
66년생 처리했을 때 우리가 없다
78년생 일을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
90년생 연인에 자상한 배려 있는 날

57년생 우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없을 것
69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81년생 귀하 흔자의 힘으로는 버겁다
93년생 연인의 마음 돌릴 길이 없구나

49년생 모르면 약 알면 병이다
61년생 보지 못한 일은 못 봤다고 하라
73년생 중도가 무방하다는 것을 잊지말자
85년생 오해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
97년생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아랫사람에게 맞추는 편이 나을 것
64년생 애·경사에 가는 일을 삼가라
76년생 짝퉁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다
88년생 사람이 없다면 생기도 없다

55년생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 조금해진다
67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
79년생 즉시 조처하라
91년생 서두르지 마라

58년생 실패보지 않는다면 결정적 패인 놓는다
70년생 속임수를 당할 수가 있으니 주의
82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된다
94년생 아작은 때가 이르다

50년생 아랫사람이 오히려 해를 줄 것
62년생 편곡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력이다
74년생 용기 갖고 일 추진해 나가는 날
86년생 연인과 여행이 성사 될 것
98년생 개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의미 있다

53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보면 망칠 것
65년생 일 꼬이고 막혀 답답하고 괴로운 심경
77년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89년생 현실성 있는 계획이 최선

56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된다
68년생 남도 보고 똥도 따졌으니 좋은 날
80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자
92년생 제 3의 이상 유혹 등을 조심

59년생 도와줄 이 가까우나 마음 넉넉한 날
71년생 세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
83년생 문제없으리니 근심하지 말 것
95년생 파곤하나 일은 순탄하다